

■ 그림 여행



63 세의 자화상

(Self-Portrait at the Age of 63 c. 1669)

伦勃朗特 (Rembrandt) 1606 - 1669)

캔버스에 유채 86 cm x 70,5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든 얼굴을 반기지 않는 것 같다. 젊고 화사한 얼굴에는 이끌리고 함께하고 싶어하지만 늙어 주름진 얼굴을 보면 설사 그것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라도 한숨을 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나이 든 얼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술사에 나오는 유명 화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노

인을 그린 그림들이 흔하지도 않지만 어쩌다 그림 속에 노인이 등장하면 대개 일그러지고 망가져가는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의 노화현상을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지 않고은 연중에 부패나 퇴락, 질병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네덜란드 황금기 화가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해 평생 수십 점의 자화상을 남겼다. 이 그림은 그가 63세에 그린 것으로 노년에 이르러 빈곤과 가난에 시달릴 무렵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구도는 매우 단순해서 어두운 배경에 옆으로 몸을 약간 틀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전부이다. 흰머리에 모자를 쓰고 배경과 거의 동일한 색상의 의상을 입고 있어 그림을 보는 시선은 노인의 얼굴에 고정된다.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34세 젊은이었을 때 그린 자화상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세월 무상'을 느끼게 된다. 팽팽하고 매끄럽던 피부는 주름져 여기저기 움푹 패이고 코도 뭉툭해졌으며 눈 가장자리는 불거져 보인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일체의 자괴감을 배제한 채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자신의 늙은 얼굴을 분석, 또는 미화 하지 않고 또한 부정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해버린 모습을 담담하게 그렸다. 오직 정면을 직시하는 눈빛 속에 자신의 내면을 담아 어두운 그림 속에 불을 밝혔다. 그리하여 노인의 얼굴은 한 인생을 온전히 살아 낸 인간의 얼굴이 된다.

김동백

OCEYELASH
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
속눈썹 연장 서비스

Special Offer

첫 방문시

"Ocelyelash town news"를
언급해 주시면 \$20 할인혜택
해드리겠습니다.

Expire date April 2023

<수강생 모집>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

- 한올 한올 정확한 1:1 시술 •
- 100% 고급 재료 사용 •
-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

상담 및 예약

714.948.0006

4128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인사드립니다.

장의사로서 장례 일정을 상담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시신방부사로서 가신 님의 몸을 직접 방부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과 정성입니다.

남가주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합니다. (*현재 저의 파악)

장례는 종교적 문화적 예식입니다.

묘지(Grave)는 묘지공원(Cemetery)에서 구입하셔도

장례예식(Funeral Service)은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동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장, 화장, 장례보험

- 풀러턴 소재 스캇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 LA/OC/San Bernardino/Riverside *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장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714.951.2520 / 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